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9월 18일(주일) 제1409호



사진은 지난해 사르밧 프로젝트. 이웃에게 감사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 나눔!

사르밧 프로젝트 ...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쌀(20kg) 전달
9월 25일까지 공동체와 순별로 헌금하고, 대상자 선정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온누리교회 각 공동체와 순에서 감사의 쌀(20kg) 헌금을 하고,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협력 농어촌교회에서는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들에게 배송할 감사의 쌀을 정성스레 준비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교회 밖 이웃들에게 농어촌교회 성도들이 수확한 쌀(20kg)을 전달한다.

아직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

은 공동체와 순은 오는 9월 25일(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헌금 6만5천 원(쌀 20kg 한 포대 가격)을 봉헌하면 된다. 헌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동시에 기입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2순).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를 선정한 공동체는 9월 25일(일)까지 사회선교부에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면 된다. 외부 기관과 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사회선교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성도

들에게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의 한 해 동안 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자"고 권면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2020년부터 추수감사절에 사르밧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도와 이웃, 포항 시민 등 2,358 곳에 감사의 쌀을 나눴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특별행사 'C.S. 루이스의 밤'

기독교 변증의 대가 'C.S. 루이스'에게 복음의 지혜를 배운다. 오는 9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C.S. 루이스의 밤' 행사가 열린다. 9월 27일(화) 개막하는 서울국제 사랑영화제의 특별행사다. 'C.S. 루이스의 밤'은 1부 연극, 2부 영화, 3부 토크쇼 순으로 진행된다. 토크쇼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추상미 감독, 김진혁 교수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올해로 19회를 맞았다. 기독교의 핵심가치인 사랑을 예술로 구현해낸 국내외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아빠를 위한 맞춤전도 '아빠 캠핑 가자'

10월 2~3일 강원도 춘천 왕터리조트 카라반존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아빠들을 전도할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전도사역본부에서 아빠를 위한 맞춤전도 '아빠 캠핑 가자'를 개최한다.

아빠 캠핑 가자는 10월 2일(주일)부터 3일(월)까지 1박 2일 왕터리조트 카라반존(강원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9-1)에서 진행된다. 초등학교 4~6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서 아빠를 전도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어린 자녀가 10세 이상이어야 한다. 안 믿는 남편을 둔 차세대 교사가 신청하면 더욱 좋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24가정을 모집한다.

문의: 02-3215-3214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참가자 교육

10월 6일 양재 기쁨홀, 27일 서빙고 비전홀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참가자 교육을 한다. 참가자 교육은 10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10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한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참가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 뜨겁다. 신청자가 많아 참가팀(A팀 11월 1~4일, B팀, C팀, 강동팀 11월 2~5일)을 네 팀으로 늘렸는데도 한 주 만에 모집이 끝났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는 오는 11월 2일(수)~3일(목) 미야자키 메디칼트 현민문화센터에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를 주제로 막 오른다. 11월 2일 미야자키 메디칼트 현민문화센터에서 교회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3일 미야자키관광호텔에서 리더십 포럼과 메디칼트 현민문화센터에서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다. 교회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김하중 장로(前 주중대사), 이기복 목사(트리니티신학대학원 교수)가 강의한다. 가스펠나이트에서는 오타 유사쿠 목사(안디옥교회)가 설교하고, 러브소나타 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양지 이 · 취임예배 및 영종 개척예배

박철웅 목사 취임, 도육환 목사 이임

양지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를 지난 8월 28일(주일) 드렸다. 박철웅 목사가 취임하고, 도육환 목사가 이임했다.

양지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는 이재훈 담임목사 말씀 선포, 이임사 및 취임사, 축복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철웅 목사(양지온누리교회)는 "교회의 비전에 맞춰 겸손과 기쁨으로 양지온누리교회를 섬기겠다"며 "앞으로 양지온누리교회가 성도와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주일예배가 감동적인 교회, 지속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는 교회, 사역자가 세워지는 교회, 선교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도육환 목사는 개척을 준비 중인 영종온누리교회를 섬긴다. 10월 2일(주일)부터 연말까지 임시예배당(인천 중구 중산동 1883-9 하늘프라자 403호)에서 매주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개척예배를 드린다.

도육환 목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영종온누리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영종온누리교회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9월 28일~11월 6일,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

전 세계 크리스천이 함께하는 낙태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9월 28일(수)부터 11월 6일(주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에서 열린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서는 기도봉사자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기도를 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온누리교회도 적극 동참한다. 기도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313

맛있는 말씀 해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시 121:6)

시편 121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시 121:1~3)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5~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어떻게 사람을 해할 수 있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분명 시편 기자는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비유해서 설명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낮의 해와 밤의 달 현상을 알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온대성 기후와 열대성 기후가

교차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현상이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크게 여름과 겨울로 나뉜다. 4월에서 10월까지의 여름이다. 뜨거운 열기의 바람이 불어와 견디기가 힘들 정도이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의 겨울이다. 온난하고 다습한 날씨가 지속된다. 여름은 건기(乾期)이고, 겨울은 우기(雨期)이다. 건기인 여름철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들이 많다. 따라서 햇빛이 작렬할 수밖에 없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이나 광야에서 햇빛의 힘은 살인적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꽤 오래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 그해 7월 렌터카를 이용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사해 바다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운행 중에 갑자기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다행히 운전자의 침착한 대처로 겨우 정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일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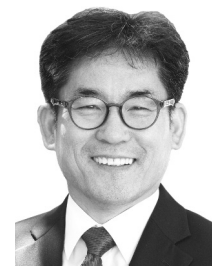
멈춰선 곳이 하필 사막 한가운데였다. 모든 생물을 말려버릴 듯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쬘고 있었고, 주변에는 풀 한 포기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 펑크 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 너트가 좀처럼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흘렀다. 숨이 막힐 정도의 열풍과 강렬한 피약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막 한가운데 머무는 시간은 곧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때 시편 기자가 왜 낮의 해가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살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열풍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의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사막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낮과 밤 기온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우리

가 시내산을 올라 일출을 보기 위해 카타리나 수도원 뜰에서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외에서의 몇 시간 동안의 기다림은 추위와의 싸움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추위가 몸속까지 스며들어왔다. 밤새 내리는 이슬이 겹옷을 적셨다. 낮의 해가 더위를 쏘는 총과 같다면, 밤의 달은 추위를 쏘는 총과 같았다. 그때 또 다시 왜 시편 기자가 밤의 달을 비유로 하나님의 보호를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살다 보면 추위가 엄습해올 때가 종종 있다. 몸이 시릴 정도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당신의 사랑으로 추위를 녹여주신다.



이기훈 목사
(사화선교본부장)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흠이 많은 인간, 완전하신 주권자

9월 19일~ 25일
창세기 25:19~27:46



목상포인트 1: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한다(말 1:2~3).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선택은 항상 선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기억하고, 에서와 야곱의 삶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자.

▶리브가는 이삭의 기도로 20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한다.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형보다 앞서기를 원했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무척 허기진 형에게 야곱이 붉은 죽(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장자권을 얻기 위한 야곱의 간사한 수법도 옳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권을 판 에서를 ‘망령된(세속적인) 자’라고 평가한다(히 12:16).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목상포인트 2: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고 평화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어 이삭에게도 복을 부여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언약 자손의 삶이 어떠한지 묵상하자.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문다. 이삭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둘러댔지만 아비멜렉에게 탄로난다. 아비멜렉은 백성에게 공포해 이삭 부부를 보호해 준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 소산을 얻고 거부가 된다. 이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으며 이삭에게 떠나라고 요구한다. 평화의 사람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옮겨 간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판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평화의 언약을 제안한다.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날, 이삭은 또 우물을 얻는다.

목상포인트 3: 평화롭던 이삭 가정에 장자의 축복 문제로 위기가 찾아온다. 이삭은 맏아들에게 축복하려 하고, 리브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둘째 아들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은 흠결이 가득하다. 인간의 실수와 술수조차 선하신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나이 많고 눈이 어두운 이삭은 에서를 불러 별미를 준비해 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고 한다. 기막힌 타이밍에 리브가가 그 대화를 듣는다.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도록 일을 지시한다. 에서처럼 꾸민 야곱이 어머니가 만든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간다. 야곱은 에서인지 확인하는 아버지를 거둬서 속이고 결국 축복을 받아 낸다. 이로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에서는 통곡하며 아버지에게 간청하지만, 그를 향한 축복은 보잘것없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장자의 축복도 잃고 만다. 에서의 복수심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리브가는 그 이후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한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에서처럼 ‘망령된(세속적인)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최고의 복이다.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지 살피고, 그러한 삶을 간구하자. ▶양보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화평을 이루는 길을 택하자.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 흠결이 많았다. 원하던 바는 성취했는지라도, 인간적 방법을 추구해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자.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과정에서 항상 정직과 성실을 추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마사이부족 마을
선교를 위해!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케냐 남동부 지역 마사이부족 마을인 엔게레수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엔게레수나는 도시와 40km 떨어진 곳으로 전기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목축하며 살기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것보다 가축을 돌보는 일이 더 익숙합니다.

최근 엔게레수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평일에는 유치원이 되고, 주일에는 교회가 됩니다. 토요일에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옆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고, 놀이터도 만들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자주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TV, 핸드폰, 인터넷이 없고, 자신의 교과서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세상이 너무 한정적이기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만나고, 꿈을 꾸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다른 마사이부족 마을에 학교와 교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곳에도 아이들 꿈의 발판이 될 교회와 도서관, 놀이터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림만 봐도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도서관에 아이들에게 행복을 더해 줄 다양한 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A선교사(케냐)

문의: meijiang00@gmail.com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성도의 거룩한 탄식

로마서 7:15~25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탄식해야 합니다.
거룩한 탄식이 있기를,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을 읽는 성도 중에 당황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통로가 될 정도로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바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죄 아래,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네 구절을 보면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15절),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18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19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24절)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시점이 아니라 과거 그가 불신자였을 때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법적으로 13절까지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다가 14절부터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한글이나 영어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쓴 당시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임한 새 생명으로 인하여 변화된 새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이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라는 고백에서 선한 것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이 나타납니다. 비록 행함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선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16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갈등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나의 상태가 율법은 선하지만 능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고백은 성도들이 거룩함에 이룰수록 나타나는 탄식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을 경험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의 상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바울의 갈등과 탄식은 성령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한 혐오, 자신이 원하는 의롭고 선한 삶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성도들의 심리상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가 더욱 거룩해질 때 죄의 실체가 더 밝히 드러납니다. 정말 깨끗한 옷에 흠이 하나 묻게 되면 더 강하게 흠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때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구원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의로운 성인들은 동시에 죄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을 덮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죄의 갈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아픈 사람들과 같다. 그들은 심각하게 아프지만 오직 소망 안에서 건강하다. 점점 더 나아지기 시작하는 한 그들은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건강해질 것이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성령 아래 있기를 갈망하는 탄식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은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은혜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성도의 탄식입니다.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도 “만약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어떤 연약함, 갈등도 없이 완전한 거룩을 이루었다면

이런 간구와 탄식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어떤 연약함도 없이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뱉는다”라고 합니다. ‘죄의 포로’라는 단어만 보고 ‘바울은 항상 죄에 대해 패배하며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의 현상을 관찰한 것입니다. 그는 죄의 실체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본 것입니다. 항상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거룩함에 이룰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더 깊이 보고, 느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묵회서신에 나타난 그의 고백은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죄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괴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 갈수록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거룩함에 이르렀을 텐데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 사로잡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상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래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탄식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성령 아래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성령 아래 있기를 더욱 갈망하는 탄식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원함 자체가 행함은 아니다”

거룩한 탄식 속에 나타난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원함 자체가 행함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15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19절).

원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나타나

지 않고 있습니다. 선에 대한 소원이 있다고 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원이 행함은 아닙니다. 선을 원하는 것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우리의 원함이 곧 행함이 아닙니다. 가장 진실한 소원조차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원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소원이 있다고 해서 소원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원함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의 세력이 우리 원함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죄가 쉽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의 저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바로가 허락했지만, 그 백성들을 쫓아와서 홍해에 수장되기가 지 완강하게 놓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의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천국 문 앞까지 따라옵니다. 바울은 두 차례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한 것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함보다 죄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함이 있다고 해서 거룩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탄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원함 위에 무엇인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임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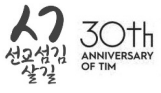
“우리는 자신을 모른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모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15절).

우리가 왜 자신을 모릅니까? 육신의 영향으로 자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면의 분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새사람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분열된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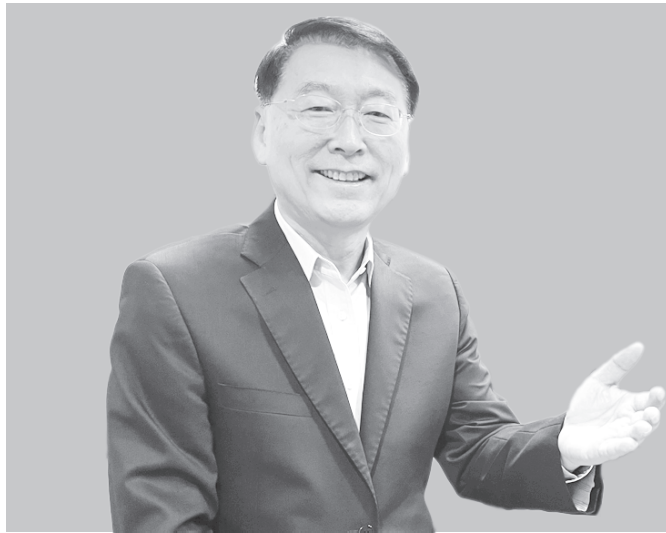
〈13면에 계속〉



두란노
해외선교회

1. 한충희 목사와의 대화

“변하는 세상에 불변하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더욱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욱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선교에 동참해주십시오.
선교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10월 5일(수)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린다. 본지에서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시리즈를 3회 연재한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 ‘한충희 목사와의 대화’이다. 지난 9월 8일 한충희 목사를 만나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지난 30년의 역사와 앞으로 30년의 비전을 물었다.

한충희 목사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지난 30년 역사는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완성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하는 세상에 불변하는 복음을 전하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되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충희 목사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창립 30주년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후원하고 중보기도 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빛은 역사입니다. 선교에 헌신해 선교지로 향하고, 2천1만 비전을 위하여 매년 선교헌금을 작성하고, 여름이면 선교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아웃리치 가는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30년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역사가 궁금합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영혼 구원과 전방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에서 태동했습니다. 1987년 7월부터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1992년 2월 선교사 7가정을 허업하면서 두란노해외선교회(TIM)를 창립했습니다. 초기에는 선교중국을 목표로 동북아시아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1996년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15개 미전도종족을 입양하면서 전방개척선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선교지역을 확대하면서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이슬람, 힌두, 불교, 공산주의 국가의 영혼

구원 사역에도 집중했습니다. 선교사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한 명의 회심자가 나올까 말까 한 지역들이었지만 굴하지 않았습다. 여러 방해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추방당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등 다양한 저항에 직면했습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현지인들과의 접촉방식이 다변화했습니다. NGO, 비즈니스,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인들과 접촉하고, 교회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다. 또 선교사가 각개전투를 벌이지 않고, 여러 명의 선교사가 하나의 팀에서 공동으로 사역하는 전략적팀을 꾸렸습다.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사역할 때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었습다. 특히 시리아에서 난민사역을 하는 레바논팀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지난 30년 동안 맺은 열매가 풍성하다고 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공동체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라는 선교단체가 30년 동안 동역한 것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7년 만에 두란노해외선교회(TIM)를 창립했습니다. 교회공동체와 선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사역은 함께 하는 것이 선교에 매

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연합해서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함께 전한 것은 형언할 수 없이 큰 열매입니다. 교회공동체와 선교단체가 동역한 덕분에 지난 30년 동안 52개 국가에 선교사 1,450여 명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을 맞아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집계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약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7,000여 명의 결신자가 나왔습다. 그 중에서 4,000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다. 300~400개 교회공동체가 지금까지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들이 선교의 주역이 되는 현지화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현지인들이 자국에서 교회개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에게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난민 지역에서도 현지인들이 전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선교의 현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지인들이 해외 선교에 헌신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난민과 이주민 선교에 더욱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난민과 이주민 선교를 하나님의 ‘흠으심’과 ‘흔드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들의 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곳에서는 강력한 공권력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한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기존의 공동체를 떠날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교지 영혼들이 다양한 이유로 난민과 이주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모국의 공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공권력 아래에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과감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과 이주민 선교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슬람과 힌두권 선교에서는 가족을 통째로 전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심자들이 가장이 무서워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난민과 이주민이 된 가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격변하는 시대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를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됐고,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급변하는 세상에 불변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당면한 과제이자 앞으로의 변하지 않는 비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본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다. 전 세계에서 높게 솟아오른 마천루와 기술, 자본 등이 코로나19와 죽음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교를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선교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가는 선교든, 보내는 선교든 선교사로 헌신해주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더욱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욱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선교에 동참해주십시오. 선교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특집기획 '로대웨이드에서 돕스까지 미국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

① 법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② 생명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③ 낙태처벌법 제정운동의 목표

“생명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임신 혹은 수정부터 살아있는 생명

대한민국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낙태죄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명시된 형법 조항에 대하여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배경이 된 미국 낙태 합법화 판결(로대웨이드 판결)이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명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5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바른여성선교회(대표 이기복 목사)가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서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학교 교수, 바른인권여성연합 자문위원)가 ‘로대웨이드에서 돕스까지 미국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이번이 그 두 번째 순서다.

/ 편집자 주



이상원 교수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바른인권여성연합 자문위원)

변화된 개인들의 숫자가 증가해도 이에 정비례해서 사회 구조가 선한 구조로 바뀌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인간은 마음의 힘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

이 사실이다. 노예제도의 폐지는 마음이 변화된 기독교인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구조에 의해 마음이 바뀌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마음의 문제이지만 예배형식, 규칙적인 예배 시간과 모임, 정해진 경건훈련 시간, 성례전 등을 통해서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이 구조를 바꾸는 힘과 구조가 마음을 바꾸는 힘 가운데 어느 힘이 더 강력할까? 구조가 마음을 바꾸는 힘이 월등하게 강력하다. 미국의 신정통주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아무리 선한 개인이라도 그가 속한 악한 집단과 싸우면 백전백패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선한 개인의 영향력이 누룩처럼 공동체에 스며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영향력을 확장하기가 너무 힘겨운 반면에 구조악은 괴물과 같은 힘으로 선한 개인을 잡아삼킨다.

둘째, 개인의 결정은 개인의 생각만 바꾸면 바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집단의 결정을 바꾸려면 집단 구성원 전체를 다시 소집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매우 번거로운 뿐만 아니라 힘들다.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다시 모이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다시 모인다고 해도 결정을 바꾸는 일에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일단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의 수혜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수혜자들은 결정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교단 총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한 문장으로 된 결의를 했다고 하자. 이 결의가 잘못된 것임이 총회가 끝난 직후 발견되었지만 다음 해 총회가 열리기까지 이 한 문장으로 된 결의를 바꿀 수가 없다. 다음 해 총회가 열려도 회원들이 바꾸자는 의견에 동의할지도 미지수

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구성원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 문장의 결의를 바꾸지 못한 채 몇 년 이상이 흘러가 버릴 수 있다.

셋째, 개인의 행동이 주체가 되는 개인윤리의 영역과 제도와 법이 주체가 되는 사회윤리의 영역은 그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개인윤리의 영역에서 바른 행동의 규범적 표준과 사회윤리의 영역에서 바른 행동의 규범적 표준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개인윤리의 영역에서는 ‘인애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행동이 바르다고 평가받지만, 사회윤리의 영역에서는 ‘공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행동이 바르다고 평가받는다. 공(公)과 사(私)는 다르다. 따라서 개인윤리의 영역에 익숙한 행동관습을 가지고 사회윤리 영역에 들어가서 행동하면 사회윤리의 영역을 망가뜨리고, 역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명제가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하다. 마음이 변화된 선한 개인들

훈련 하고, 이론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서 동시에 구조와 법의 변혁을 위한 회의, 시위, 집회, 법 개정 노력, 항의, 기자회견 등에도 부지런히 참여해야 한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가 이 사실을 간파하고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경건 훈련에 힘쓰면서도 낙태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미국 프로라이프 정치운동의 초석을 놓았으며, 쉐퍼의 뜻을 이어받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프로라이프 정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50년 동안 쌓은 내공에 힘입어 ‘Roe vs Wade’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Dobbs vs Jackson’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

두 판결 논쟁에서 생명 시작점이 차지하는 비중

텍사스주 형법, ‘Roe vs Wade’ 판결, 그리고

“기준점이 흔들리면 논증 전체가 흔들린다.
임신 시점이나 수정 시점은 이론의 여지 없이
명료한 불연속점이어서 이 시점을 전제로
논증을 전개하면 일관성 있고, 힘이 실린다.”

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사회구조를 선한 구조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악한 구조가 선한 개인들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월등히 강력하다. 구조의 힘, 법의 힘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하나 뿐이다.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인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후에야 비로소 구조변혁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종말의 날까지 구조변혁에 나서지 못한다. 종말의 날까지 마음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구조가 바뀌고 난 후에 비로소 개인의 마음 변화에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말의 날까지 마음의 변화에 착수할 수 없다. 종말의 날까지 사회구조는 결코 완전하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경건

‘Dobbs vs Jackson’ 판결을 읽어 보면 판결 정당화 논쟁이 생명의 시작점 문제를 축으로 나뉘어 진영이 일보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 논쟁에서 밀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텍사스주 형법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신 주수를 묻지 않고 모든 기간에 걸친 낙태를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 혹은 수정 순간부터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Roe vs Wade’ 판결이 텍사스주 형법의 반헌법성을 공격할 때 바로 생명의 시작점 문제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Roe vs Wade’ 판결은 고대 희랍시대부터 중세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임신 혹은 수정 순간부터 태아를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계와 의료계에서 다수 의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데 주력했다. ‘Dobbs vs Jackson’ 판결

이 ‘Roe vs Wade’ 판결을 논박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이 판결이 명시적인 낙태 허용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임신 후 첫 3개월이 지난 시점이나 사실상 낙태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태동감지 시점이 모두 의학적으로 근거가 매우 희박한 기준선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태동을 감지하는 시점은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장박동시점도 마찬가지다. 심장박동시점을 5-6주로 보고 있지만, 이 시점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앞당겨질 수 있다.

‘Dobbs vs Jackson’ 판결이 ‘Roe vs Wade’ 판결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논증할 수 있었던 이유도 ‘Dobbs vs Jackson’ 판결이 인간의 생명은 임신 혹은 수정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전제 위에 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Roe vs Wade’ 판결이 연방헌법의 수정조항들이 낙태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논증으로 비판할 수 있었고, 수정조항이 소위 사생활권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성 있게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Dobbs vs Jackson’ 판결 논증의 출발점이 임신설 혹은 수정설이었기 때문이다. 수정조항이 사람을 죽이는 권리를 자유권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도 말이 안 되는 해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Dobbs vs Jackson’ 판결이 임신설이나 수정설 이외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박동설을 인정하고 들어갔다면 ‘Roe vs Wade’ 판결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비판할 수 없었을 것이며, 논증에 실패했을 것이다. 임신설 혹은 수정설 이외의 어떤 시점을 생명 시작점으로 잡는 순간 논리적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임신 시점이나 수정 시점 이외의 어느 시점도 의학적으로 일관성을 말할 수 없거나 말을 해도 근거가 극히 희박하거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준점이 흔들리면 논증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나 임신 시점이나 수정 시점은 이론의 여지 없이 명료한 불연속점이어서 이 시점을 전제로 논증을 전개하면 일관성 있는 논증이 가능하고, 논증에 힘이 실린다. 이 점에서 ‘Dobbs vs Jackson’ 판결의 전략이 탁월했다.

(계속)

III 강영재 장로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는가?”

양과 염소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전 연세
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교수)

양과 염소는 성경 말씀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읽다 보면 두 동물 모두 정결한 짐승에 속하며 제사의 제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 중에 양은 의롭고 정결한 동물로, 염소는 악하고 부정한 동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라고 하신 마태복음 말씀 때문 일 것이다. 그 말씀을 읽어보자.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양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났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들였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났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피지 주지 않았다.’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마 25:31-46).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목자가 방목을 마치고 저녁에 우리 안에 넣을 때 양과 염소를 좌우로 확실히 구분해서 양 무리에 염소가 섞이지 않고, 염소 무리에 양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날에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확실히 구분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일부 크리스천의 해석처럼 양이 곧 의인의 상징이고, 염소가 악인의 상징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목자가 방목을 마치고 저녁에 우리 안에 넣을 때 양과 염소를 좌우로 확실히 구분해서 양 무리에 염소가 섞이지 않고, 염소 무리에 양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날에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확실히 구분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일부 크리스천의 해석처럼 양이 곧 의인의 상징이고, 염소가 악인의 상징이라는 것이 아니다.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는 이유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해석이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를 보고 그렇다면 왜 함께 방목하되 우리에게 함께 두지 않는지 궁금해할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섞어서 방목하는지에 대해서 류모세 선교사의 책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두란노 2009) 14장 ‘양은 좋은 동물, 염소는 나쁜 동물일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책의 내용을 간략히 옮겨 적으면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섞어서 방목하는 이유는 이렇다. 뜯어먹을 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야에서 잘 자란 잎만 뜯어 먹는 염소의 풀 뜯는 습성을 양이 모방해서 잘 자란 잎뿐 아니라 어린 순과 줄기까지 뜯어 먹는 양이 염소처럼 잘 자란 잎만 뜯게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풀이 다시 자라 초장이 보호되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위험한 낭떠러지가 많은 광야에서 겁 많은 양



이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할 때 염소가 돌격대 역할을 해 나아가는 것을 양이 보고 따라갈 수 있어 소수의 염소를 양 무리에 섞어 방목시킴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책의 설명으로 알 수 있듯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과 염소를 섞어서 길렀던 이유는 양과 염소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결코 선한 양 무리 속에 악한 염소를 넣어 연단을 주거나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마친 염소를 밤에 우리에 들일 때 양과 섞이지 않도록 확실히 구분해서 양들이 염소의 방해로 받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염소 우리로 몰아넣는 것이 마태복음 말씀의 핵심이다.

제물로 사용된 양과 염소

염소가 악인의 상징이 아니라는 근거가 또 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에 양과 염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신 14:4-5). 유월절 제물로 우리말성경이나 개정개역에는 양만 언급되었지만 히브리어 성경과 표준새번역 성경에는 양이나 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출 12:21).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들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그스름한 사슴, 산염소, 야생염소, 영양, 산양 등이다”(신 14:4-5).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출 12:21, 표준새번역).

또 각양 제사에 번제물로 염소도 사용된다. 대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내용이 담긴 레위기 16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다. 만약 염소가 부정하고 악한 존재이거나 악의 상징이라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제물로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가

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로 황소를 드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염소 두 마리를 가져다 회막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그는 염소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아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뽑힌 염소를 가져다 속죄제물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힌 염소는 여호와께 산 채로 세워 두었다 그것에 대한 속죄 의식을 수행하고 그것을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낸다”(레 16:5-10).

“그 후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다 수소의 피로 행한 것과 같이 속죄의 자리 위와 속죄의 자리 앞쪽에 뿌려야 한다”(레 16:15).

“그 후에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해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는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조금씩 가져다 제단의 모든 뿔에 발라야 한다. 그는 손가락에 피를 조금 찍어 그곳에 일곱 번을 뿌려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대한 속죄 의식을 마친 후에 살아 있는 염소를 끌고 와라. 그는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염소를 미리 정해 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그는 숫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레 16:18-22).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과 삶을 살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처럼 말씀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은혜 받은 몇 구절이나 설교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에 매여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말씀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개인의 지식과 극히 한정된 해설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잘못된 해설로 인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기도한 것은 단지 자기의 고민과 문제를 예수님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긴 것뿐이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말한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헌신 없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삶 가운데 급하게 해결 받아야 할 고난, 자기에게 꼭 필요하거나 소원하고 있는 일 전부를 언제나 예수님께 말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했으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겠다는 것

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본인이 기도한 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께서서 이루어 주시는지 아닌지 지켜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가 ‘기도를 하되 아무 노력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으로 들린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는 일이 없어도 된다는 것처럼 오해한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 다음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다. 그 응답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목숨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생명을 포함해서 자신이 가진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한 것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것까지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을 자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본성적으로 내 것이라는 미련이 조금만 남아도 아까워서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진짜로 남의 것이 분명하면 구태여 그것을 놓치지 않으

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지 않는다. 말로만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지, 그 속마음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께 받고 난 이후에 내 것이 되었고, 주신 것에는 감사하지만 앞으로 쓰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주 더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분 외의 어떤 자원과 능력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분의 해결책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것과 동시에 아니 세상으로부터의 해결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씩 별도의 시간을 두고 따로 일어나거나 하나만 일어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만이 완전한 기도다. 또 그럴 때면 당연히 그 기도의 결과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자기 뜻과 계획대로 전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한 내용마저 전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 26:39).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다.

진정,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묻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것을 전부, 언제든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사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포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정도가 아니다. 그 자체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심지어 내가 느끼고 있는 기쁨과 감사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다.



안사무엘 목사
(CHPLU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의 연결감’ 만들기

부부는 늘 서로 연결되는 경험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일상에서 적은 시간만 투자하면 부부의 연결고리가 견고해지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조건이 붙는다면, 적은 시간을 투자하되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페어인리치(Prepare-Enrich, 커플부부심리검사)에서는 부부가 늘 연결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신체적으로 손닿을 수 있는 거리를 늘 유지하기, 가능한 가벼운 스킨십을 종종 갖기, 함께 춤추기,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기,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소한 것을 만들기, 함께 걷기, 서로의 일상에 관심 가지고 배우자의 일상을 기억해주기 등이다. 프리페어인리치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은 하루 10분 이내이다. 하루에 10분 정도 투자해서 위에서 제안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부부는 연결감을 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부부 연결방법을 꾸준히 활용할 수 있다면 부부는 적절한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의 연결 경험은 친밀감을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부부가 기대하는 것은 친밀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부부가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때때로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부부가 친밀감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감을 가지는 것이다. 부부는 연결감을 위해서 서로의 마음에 의식적으로 노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작은 노력을 한다면 부부는 늘 함께한다는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 믿음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여전히 행복하다는 풍성한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부부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부부 연결 방법 중에 부부가 영적으로 깨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하나를 이룬다는 의미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면 부부는 더 깊은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다. 부부는 살면서 갈등 가운데 관계의 다양한 찌꺼기들이 쌓이는 경험을 한다. 관계에 찌꺼기들이 쌓이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서로에 대해 남게 된다. 감정적으로 관계의 찌꺼기들이 쌓이면 결국 서로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된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되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 서로의 관계가 삭막한 광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사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부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 다행히 결과가 좋으면 부부는 더 신나서 서로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자신의 기대가 높거나 배우자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단절과 절망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배웠던 모든 지식과 노력이 소용 없다는 절망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때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면 서로의 얼어붙어 있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믿는 자에게는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고, 더하여 결혼한 부부는 부부만의 기도시간이 필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

신체적으로도 매일 연결되는 경험을 갖는 것도 서로의 연결감에 큰 도움이 된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가벼운 포옹을 자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 물론 배우자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미리 합의할 수 있는 신체 접촉 범위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부부는 서로 터치가 없거나 거부한다. 배우자의 터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도 한다. 서로의 신체적 접촉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자연스럽게 부부에게 중요한 신체적 연결점이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작은 접촉이라도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실행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 유익하다.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다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할 이야기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영상통화를 켜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연결이 필요하다. 최선을 찾을 수 없다면 차선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영상을 통해서도 서로 연결감을 적절히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대화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가 틀어진 부부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에서도 매우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들이 오고 간다. 부정적인 말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폭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서로의 마음에 깊고 심한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어떤 남편과 아내는 과거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심하게 했던 서로의 말이 여전히 비수처럼 남아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부부를 단절되게 한다. 부부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짧더라도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는 등 연결되고, 접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노력은 온화해야 하겠고 대화는 긍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긍정적 대화에는 서로를 향한 칭찬이 동반된다. 부부는 대화중에 칭찬할 것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좋다. 칭찬은 또한 서로에 대한 감사도 함께 하는 특성이 있다. 부부는 서로가 여전히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노력을 서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히 10:24).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선교 여행

‘오아시스’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우리트 대표)

1907년 9월 17일,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시원한 바람을 품은 어느 가을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목사후보생들의 감격적인 목사안수식이 거행되었어요. 이날은 ‘조선예수교 장로회 독노회’가 설립된 날이며,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회 7분의 목사님이 배출된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조선예수교 장로회 독노회는 설립의 기쁨과 감격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막 태어난 노회였지만 부족함 없는 여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이 날 안수받은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결의(뜻을 정하고 굳게 마음을 먹음)한 거예요. 조선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으며, “땅끝까지 이르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교회였음을 확신시켜준 사건이에요.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광주, 순천, 고흥, 벌교를 거쳐 여수 금오도(우학리)를 섬기셨어요.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35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이기풍 목사님의 마지막 목회지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나 갈 수도 없는 100년 전 섬마을 교회였어요. 이 사실 만으로도 이기풍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기풍 목사의 감격과 감동, 그리고 사명감

제주도는 오늘날에도 선교하기가 어려워서 ‘말이 통하는 선교지’라 불릴 정도예요. 110여 년 전 한국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불렸던 제주도 선교에 자원해서 순종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예요. 그분은 첫 번째 안수자로서의 감격과 감동, 그리고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일에 임하셨어요.

이기풍 목사님의 순종은 70살이 다 된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의 크고 강한 믿음과 순종이 나이가 들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교역자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거리며 매주 주일 목자를 기다리는 섬마을 교회(우학리교회)의 청원을 외면할 수 없어서 자원하셨어요. 남도의 끝 여수, 그곳에서도 배를 타고 가야만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섬마을 교회와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우학리교회의 목사관에서 숨이 다할 때까지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어려운 시간을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사명을 다 하셨어요. 이기풍 목사님의 흔적을 우학리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섬 교회이자 역사를 간직한 교회, 그리고 위로와 쉼을 주는 공동체

금오도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1906년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우학리교회가 올해로 116주년을 맞이했어요. 금오도의 고즈넉한 섬마을의 풍경을 걷다가 혹은 드라이브하다가 웬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커다랗고, 시원하고, 세련된 건물을 보이면 바로 그곳이 우학리교회입니다.

우학리교회의 예배당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만큼 아름다워요. 일부러 보란 듯이 입구에 교회 이름보다 ‘cafe 오아시스’라는 큼지막한 표지판을 눈에 띄게 세워두었어요. 목사님도 그 표지판을 보고 ‘교회인가? 카페인가?’ 순간 헛갈렸어요. 시골교회를 상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정말 멋진 카페가 있거든요.

올해로 부임 3년째를 맞이하는 김요셉 담임목사님은 우학리교회가 단순히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문화적, 영적으로 위로와 휴식이 되어야 한다는 목회 철학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카페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쉽고 위로를 건네고 선물하고 있다고 해요.

그뿐이 아니예요. 이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 136년 만에 처음으로 목욕탕이 생길 수 있도록 부지 선정에 도움을 주는 일 역시 우학리교회에서 했어요. 우학리교회는 섬교회이자 오래된 역사를 지닌 교회,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는 ‘오아시스 공동체’를 꿈꾸고 이뤄가는 현재진행형 교회입니다.



여수 금오도에 있는 ‘이기풍목사순교기념관(왼쪽)’과 ‘우학리교회(오른쪽)’.



차세대 창조탐험대 참여 소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 될래요”

평소에도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늘 아빠가 창조과학에 관해 말씀해주셨어요. 엄마가 창조과학을 더 잘 아는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셔서 창조탐험대에 참여했어요. 창조탐험대에서 활동하면서 소설 같았던 성경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뿌듯했

어요. 선생님과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성경책이 과학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창조과학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 김시을 학생(서빙고 꿈땅, 초등 6학년)

창조탐험대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설렘했어요. 창조론이 진짜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창조탐험대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나는야 청지기’ 토론이었어요. 토론으로 지식을 쌓고, 청지기로서 자연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홍수로 인해 지층이 생겼다는 것, 공룡은 노아의 홍수로 죽었다는 것, 공룡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배워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 손필립 학생(양재 꿈땅, 초등 5학년)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9월 14일
본문(창 24:3~7)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좋은 신부감을 얻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을만한 종을 고향으로 보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에게 말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보기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 ①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 ② 내 고향 친척들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 ③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고향으로 보내라
- ④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9.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비하세요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재' - 공주제일교회와 영명학교

그들은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을 들고 왔다!



영명중고등학교 정문에 있는 '공주독립운동기념관'

공주는 오랫동안 충청지역 행정 중심이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충청지역 선교의 중심으로 공주를 주목했다. 1902년 공주에 초가 한 채를 사서 전도사 김동현을 파송한 것이 공주제일교회의 시작이었다. 그 다음 해에는 초가 두 동을 사서 의료선교사 맥길을 파송했다. 초가 한 동은 예배당, 나머지 한 동은 병원과 교육 공간으로 사용했다.

1905년 맥길 선교사 후임으로 샤프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같은 해 샤프 선교사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하몬드 사에리시와 혼인했다. 샤프 선교사는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아내 사에리시 선교사는 공주에 명설여학교를 세워 여성교육에 매진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06년 샤프 선교사가 장티푸스

에 걸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나이 34살이었다. 사에리시는 남편의 소원으로 잠시 미국으로 귀국했다가 돌아와 명설여학교를 이끌었고, 유치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샤프 선교사 후임으로 왔던 윌리엄 선교사(Williams)는 교회사역을 하면서 중흥학교를 세웠다. 훗날 중흥학교와 명설여학교가 통합되어 영명중고등학교가 되었다.

한국 최초 여성 목사인 전밀라, 여성 경찰서장 노마리아, 장관을 지낸 임영신이 사에리시 선교사의 제자였다. 사에리시 선교사는 1910년 천안에서 유관순을 처음 만났다. 신앙과 총명함이 남달랐던 유관순에 감명 받은 사에리시 선교사는 유관순을 공주로 데려와 영명여학교에 입학시켰다. 1915년 서울 이화

학당 보통과에 편입시켜 수준 높은 교육을 받도록 도왔다. 같은 시기 영명학교 학생이던 조병옥을 연희전문학교로 유학시켜 지도자로 성장하게 했다. 사에리시 선교사는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추방되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972년 101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사에리시 선교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추서했다.

공주제일교회 옆 제민전을 건너면 언덕 위에 영명중고등학교가 있다. 학교 정문 앞에 있는 3.1중앙공원에는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세워졌다. 태극문양의 기념공원 한가운데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있다.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영명중고등학교 정문은 공주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 정문이면서 기념관으로 사용되는 독특한 건물이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개교 100주년(1906~2006) 기념탑이 우뚝 서 있다. 이 학교 설립자인 윌리엄 선교사의 흉상이 그 앞에 놓여 있다. 기념탑 뒤에는 독립운동가 황인식 교장, 영명학교 2회 졸업생 조병옥 박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흉상도 함께 있다. 공주 구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는 유관순 열사와 사에리시 선교사의 동상이 있다. 선생님과 제자의 다정하고 따뜻한 시선이 눈에 띄는 동상이다.

영명학교 언덕 느티나무 아래에서 선교에 대해 생각해봤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전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각 나라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선교를 해야 한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의료 및 교육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을 들고 왔다. 가난해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조선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했다. 병 고침을 받은 이들이 완고한 마음을 풀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다.

또 고아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교육시켰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땅에 실현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쳤다. 교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다. 교육받은 이들은 일본제국주의가 자행한 부당한 황포에 믿음으로 맞섰다. 선교사들도 함께 싸웠다.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중추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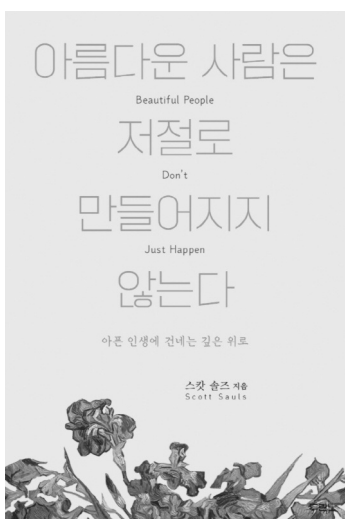
정의의 편에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유불리를 따져가며 행동거지를 결정하는 영악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넘치도록 축복받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서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임찬웅 성도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 (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두란노 신간

고통을 통과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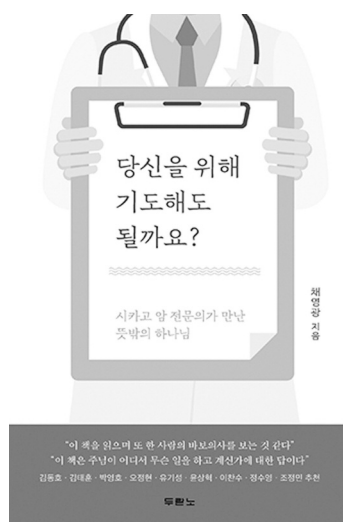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캇 솔즈 저 | 두란노 | 17,000원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면 심지어 휠체어도 설교단으로, 항암 치료실도 예배의 장소로, 만성 통증도 거룩함으로 가는 통로로, 무덤도 부활의 땅으로, 죽음도 자유로 가는 길목의 축제로 변한다.”

스캇 솔즈 목사의 신작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의 핵심 메시지다. 이 책은 영혼을 쫓먹는 후회, 상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지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스캇 솔즈 목사는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힘든 시절과 상황을 견디고 있는 이들을 여럿 만났다. 스캇 솔즈 목사도 불안과 우울증을 비롯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다. 그래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큰 위로를 건넬 수 있다. 그가 이 책 곳곳에 모든 고통을 통과하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어둔 것도 그 경험에서 나왔다.

이 책은 미래에 관한 걱정이나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해묵은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힌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위로를 건넨다. 홀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교회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돌보고, 안아줄 것인지도 성경적으로 고민하게 만든다. 위료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채영광 저 | 두란노 | 18,000원

교회에서는 성도,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산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어디서나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 바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다. 책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는 신앙과 학문, 신앙과 진료가 하나 된 채영광 교수의 간증집이다. 채영광 교수는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의 암 전문의다. 그는 표준 치료법으로는 더는 손쓸 방도가 없는 환자들을 위한 신약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다. 마지막 희망을 잡고 임상시험센터에 오는 환자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에서는 환자들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기도해왔는지 그 여정을 볼 수 있다. 일류를 쫓던 의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의사가 되기까지의 여정도 나와 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특히 내 환자 대다수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다. 그들에게 ‘생애 마지막 만나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싶다.”

이 책을 읽고 우리도 채영광 교수처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 가족이 병환 중에 있는 성도, 성공과 직업을 고민하는 청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 자선장 행사에 수많은 성도와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주민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한가위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 이주민 450여 명 참가

온누리가 이주민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냈다.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Harvest) 2022’ (이하 하비스트)가 지난 9월 10일(토)과 11일(주일) 안산M센터에서 ‘The Only Way’를 주제로 열렸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하비스트에는 이주민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하비스트에서는 10일(토) 저

녁집회, 11일(주일) 연합예배, 자선장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자선장 행사가 이목을 끌었다. 17개 부스가 차려진 자선장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음식과 물품, 기념품 등을 판매했다. 자선장 수익금으로 혈액암 투병 중인 몽골 어린이 ‘아나르’ (13세, 서빙고 몽골어예배)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는 “이

주민들과 한국인 형제자매들이 흥겹게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다”고 했고, 호썸 사모(안산 베트남어예배)는 “다양한 국가의 성도들이 함께 춤추면서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경험한 것 같았다”면서 “천국의 기쁨을 베트남에도 전하고 싶어졌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책 읽고 싶어지는 콘텐츠 ‘잇쉬의 서재’

CGNTV 9월 16일부터 매주 금요일 공개

CGNTV가 가을을 맞아 책이 읽고 싶어지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9월 16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기독교 OTT ‘풍당’에서 ‘잇쉬의 서재’를 한 편씩 공개한다.

‘잇쉬의 서재’에서는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디트리히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하나

님 나라>, 존 스토틀의 <제자도>, 유진 피터슨의 <매시지 성경> 등을 다섯 명의 기독교 작가들이 소개한다.

CGNTV ‘잇쉬의 서재’에는 배우 박시은, 이석준, 가수 홍대광 등이 출연한다. 9월 16일부터 15회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23년 상반기 결혼예배 예약

9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 양재 두란노홀

2023년 상반기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한다. 9월 20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지하 1층)에서 결혼예배 날짜를 추천한다.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신랑, 신부 또는 양가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할 수 있다. 예비신랑과 신부는 반드시 등록 교인이어야 한다(타 교회 포함). 결

혼예배 예약을 하려면 예약금 50만 원과 교인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예비신랑과 신부가 타 교회 교인일 경우 소속 교회의 ‘교회확인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원하는 결혼예배 날짜를 미리 2-3개 선정해 오는 것이 좋다. 결혼예배 추천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한다.

문의: 02-570-7505



미야자키 기도제목

- 9월 19일(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러브소나타가 되도록
- 9월 20일(화) 일본 실행위원회 교회, 성도들을 은혜와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 9월 21일(수) 미야자키 교회들에 영적 부흥과 새 바람이 불기를
- 9월 22일(목) 참석자들의 마음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 9월 23일(금) 이재훈 목사님과 출연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 9월 24일(토) 스태프와 봉사자들이 건강과 지혜로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 9월 25일(주일) 날씨, 교통, 시설, 장비, 안전 등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강생 모집

10월 15일부터 매주 토 오전 10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양지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4주차에는 오후 2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가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치유하고, 은혜의 눈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하

나님의 가정을 만들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피플퍼즐’, ‘부부치유&연합’, ‘부부의 성’, ‘자녀교육’, ‘가정제도의 원리’ 등을 주제로 6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10월 9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정당 20만 원. 문의: 010-9242-9350(서빙고), 010-4429-5025(양재)

이스라엘 건국사 ‘종횡무진’ 참가자 모집

9월 24일~10월 8일 오전 10시 양재 JDS홀

이스라엘 건국사를 배우는 ‘종횡무진’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진행된다.

류묘세 선교사가 ‘헤르렐은 왜 플레이보이에서 시온주의자가 되었

나?’, ‘유대인 600만 학살은 기독교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 이스라엘 건국 선언과 함께 전쟁이 일어났을까?’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전화(010-8550-7930)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8550-7930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9월 28일부터 온라인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9월 2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문의: 02-2182-9114

두란노어머니학교 9월 P.P 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9월 P.P(Power Prayer) 기도회가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열린다.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182-9114

성서지리 신약반 15기

9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온라인

성경 속 실제 역사와 지형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돕는 ‘성서지리 신약반 15기’ 세미나가 9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주 동안 온라인으로 열린다. 국내 1호 성서지리 박사 이문범 목사(사랑누리교회 담임 목사, 종신대 겸임교수)가 ‘성서지

리 개관’, ‘로마시대와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와 예루살렘 사역’, ‘사도행전 전도여행과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강의한다.

성경을 역사적, 지리적으로 폭넓게 이해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4만 원이다. 문의: 02-2078-3275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쉽게 해석해주고, 한 주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에 대한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어린이신문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의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실을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을 보낼

때는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에 게재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문의: 02-6959-0001

■ 온누리호스피스학교 참가자 간증



/ 황은영 권사(온누리호스피스)

내 삶의 기적 ‘온누리호스피스학교’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던 나를 온누리호스피스학교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내 삶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것은 2009년 10월이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매달려보았지만 잠시였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소견대로 살면서 짝의 아픔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남편이 환자라는 사실을 잊고 몇 해를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약해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발에 생긴 동상, 손 떨림, 둔한 움직임 등 남편이 아내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나는 퇴직을 결정했다. 내가 온누리호스피스학교에 입학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닐 수 없다. 하루 6시간, 10주 동안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큰 사랑을 짝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안에 꼭꼭 가두어뒀다.

온누리호스피스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 특히 ‘발반사 교육’이 우리 부부에게 고맙고 소중한 나눔이 되었다. 발반사 교육을 통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발의 구조와 기능,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발반사의 효능이 파킨슨병과 류마티스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강사님의 설명이 내게 큰 희망이었다. 강사님은 무엇보다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자주 언급하셨다. 발은 낮은 자리를 뜻하고, 발반사 마사지는 진정한 섬김이라는 설명이 가슴에 와 닿았다. 발반사 교육을 마치고 봉사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요양원 어르신들을 뵈러 갔다. 어르신들은 우리를 미소로 맞아주셨다. 우리의 서툰 손길에도 불구하고 두 손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 한 주를 건너뛰면 관심을 보이고 안부를 물어봐주시기도 했다. 그 어르신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다시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원 방문은 물론이고 발반사 마사지마저 멈췄기 때문이다. 온누리호스피스학교가 3년 만에 대면 수업(특강)을 하게 되었다. 연령, 성별, 종교, 교파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온누리호스피스학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기를 소망한다.

온누리호스피스 특강
발반사 특강: 9월 22일~10월 27일
호스피스 특강: 11월 3일~24일
문의: 010-3412-7966

■ 마더와이즈 수료 간증



/ 이아름 성도(강서공동체)

철수세미에서 스펀지로!

나는 다섯 자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다. 항상 관심에 목마른 조용한 성격의 아이였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은 늘 피곤해하셨고, 자주 다투셨다. 아버지는 술, 친구, 여자를 좋아하셨고 늘 외롭게 지내는 엄마는 딸들에게 아버지를 원망하셨다. 크면서 나도 힘들 때마다 아빠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다.

교회에서 아버지와 다를 것 같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 한 달 만에 첫째 아이가 생겼고, 첫째를 출산하고 10개월 만에 둘째가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며 칭찬했지만, 아이들을 붙잡고 같이 우는 날이 있었다. 전부 내려놓고 혼자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어느 날, 시댁과의 갈등과 시아버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의 우울증이 최고점을 찍었다. 시아버님도 아빠와 다를 것이 없다며 시아버님께 반항하듯 속에 있던 분노를 쏟아냈다. 시댁과 갈등으로 연락을 끊고 2년이 지났다.

시댁과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온누리교회로 옮겨와 양육을 받기 시작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마더와이즈’를 수강했다. 마더와이즈 ‘지혜편’을 통해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양육하는 지혜를 배웠

다. 하나님은 말씀과 나눔을 통해 시댁과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아버님께 편지로 마음을 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 시아버님이 나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받아주셨다.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주시고 안아주셨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은 깊이 용서받아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다. 마더와이즈 회복편에서는 내가 경험한 화해와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철수세미처럼 가족들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내는 스펀지로 변화되는 모습이 놀랍다. 나를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헝시바’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으며 기쁨의 면류관을 쓰는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소망한다.

마더와이즈
일정: 9월 27일~11월 29일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 창조탐험대 참가 간증



/ 민군홍 전도사(서빙고 꿈땅)

창조탐험대와 함께한 아주 특별한 여름

창조탐험대의 탐험에 참여하기 위해 짐을 썼다. 1박 2일이라서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짐을 싸는 동안 소풍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렜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탐험 아닌가!’ 더구나 이번 탐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더욱 기대감이 커졌다. 출발하는 날 아침 만난 아이들의 눈에서도 나와 같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장시간 이동하는 일정이라서 버스 안에서 강의가 총 4번 이루어졌다. 자칫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었지만, 강사님께서 재밌게 설명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탐험 장소는 진안 마이산이었다.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설명을 들으면서 산 전체가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밤에 숙소에서는 ‘완전 특별한 밤’이라는 순서를 가졌다. 배웠던 내용을 퀴즈처럼 아이들에게 물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막힘 없이 척척 대답했다. 장난치고 집중하지 않고 힘들다고 투덜대던 아이들은 사라지고, 어엿한 창조과학자들이 되어 있는 듯했다. 그 다음 날에는 부안 격포로 이동했다. 돌 하나, 바위

하나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볼 수 있었다.

세상은 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의 신화나 설화로 취급하려 한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성경을 한 종교의 내용, 개인적인 믿음으로 치부하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창조관에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의 시작입과 동시에 우리 믿음의 시작인데, 잘못된 교육이 자라는 아이들의 믿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다행히 온누리교회에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창조과학 선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1박 2일 동안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기억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올바른 창조에 대한 교육, 올바른 과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다. 창조탐험대와 함께한 특별한 여름을 만들어 주신 ‘창조과학선교회’에 감사드린다.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배동란 성도(한강공동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공동체와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매주 남편과 함께 찬양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 신학교에 편입해서 신학 공부도 했다. 하지만 주일 내내 교회 봉사로 바빠 뛰어들어도 정작 기쁨보다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진전이 없었다.

목숨을 건 선교사, 목사, 믿음의 선배들의 일생을 보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진정한 사역처럼 느껴졌다. 그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순 개편으로 한강공동체 마리아3순(김정애 순장)의 식구가 되었다. 순 식구들 모두 25기 온누리전도학교에 입학하기로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과제로 <날마다 111 전도>(날마다 111 전도: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책을 읽으며 전도에 대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정말 부드럽게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며,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을 느꼈다. 그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영혼구원(전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자!”

온누리전도학교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5분 전도문을 암송하며 복음의 무기를 준비했다.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사역하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온누리전도학교의 훈련과정이 너무 좋아서 주변 성도님들에게 이번 26기 온누리전도학교를 권했다. 네 분이 참여하셨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깨달았다. 심판의 날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고 싶다. 온누리전도학교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나를 파란 하늘 구름 위에서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며 미소 짓고 계시는 것이다.

장로칼럼

불편한 편의점 안에 있는 일만사역

김영환 장로
(OCC 공동체)

2022년 상반기 최대의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을 얼마 전에 사서 단숨에 읽어버렸다. 편의점 주인인 옴 여사는 교회 권사이자 퇴직한 교육공무원이다. 옴 여사의 편의점은 장사가 잘 안된다. 주변에 경쟁 편의점이 많고 위치도 좋지 않아서다. 옴 여사는 돈보다 3명의 알바들을 위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야기는 어느 날 옴 여사가 파우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아준 노숙자 독고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독고는 알 수 없는 사람이다(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데 옴 여사는 독고를 자신의 편의점에서 심야 알바로 채용한다. 편의점에 노숙자가 알바로 근무한다? 그 편의점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옴 여사는 다른 알바들에게 너그러운 배려를 하듯이 독고에게도 그렇게 대한다.

3년째 일만사역 담당장로로 섬기면서 ‘Acts Together’라는 비전을 세웠다. ‘Acts Together’란 교회의 경계를 넘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Acts 29를 함께 써 내려가는 운동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Acts 29를 떠올리면, 선교사님들이 떠나면 이 국땅에서 힘들게 예수님을 전하는 운동이며, 우리는 한 번 정도 이웃교회에 가고,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선교의 대상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란 하나님의 도라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을 성취하시고 열방에 복을 가져다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도라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내가 사는 이 땅이 복을 받게 되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 그들과 똑같이, 때로는 그들보다 더 역적같이 나와 내 가족만 위하면서 살아왔다. 노숙자를 보는 순간 눈을 질끈 감고 지나가기 바빴다. 이웃 간에도 조금만 불편하면 언성을 높이고, 직장에서도 암체 같은 행동을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저지르곤 했다.

<불편한 편의점>의 옴 여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어렵지 않다고. 그냥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을 보여줘도 그들은 변하고, 변화된 그들로 인해 세상은 밝아진다고... 그리고 그런 그들의 관심은 결국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이고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말한다.

요즘은 팀원들과 일만사역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과거와 같이 전단지들을 들고 거리에 서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속한 영역(불편한 편의점일 수 있겠다)에서 자신만이 아는 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혼자 가 아니고 함께 하자는 것이다.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사회참가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불편한 편의점이 필요하다. 그곳에 내가 속한 영역 속의 누군가가 와서 쉬어가고 회복되는 그런 불편한 편의점이 필요하다. 그곳에 오면 그들은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권사칼럼

다시 내딛는 발걸음

서정원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어린 가지 같고 작은 불씨 같은 우리가 소망 안에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한 담당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코로나 19로 막혔던 소망교도소 봉사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지난 6월 20일 시험적으로 소망교도소 멘토링 봉사가 재개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사역이 가능하게 됨을 확인한 것이다. 이어서 7월 21일 교도소 사역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사회선교부 새사람사역팀은 국내 13개 교도소에서 예배와 일대일제자양육, 큐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멘토링 봉사를 하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에서는 이 모든 봉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로 2년 반을 훌쩍 넘기고 맞이하는 만남의 시간이라서 그런지 30여 명의 봉사자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모두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다시 소망교도소 형제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예배를 드리고, 일대일제자양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알아가고, 큐티로 삶을 나누고, 멘토링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든 과정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소망교도소 과장교도관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교도소 소개와 안내 외에 뜻밖의 놀라운 간증까지 더하시면서 봉사자들의 마음을 긴장시켰다. 코로나19로 2년여 동안 닫히고 막히고 모든 것이 정지된 것만이 아니었음을 감동적으로 들려주셨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재소자들 스스로 모임이 가능한 숫자만큼 조를 만들고, 조장을 세우고, 성경을 쓰고 읽고, 세족

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듣고 나누고 보듬어 주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코로나19 전에 봉사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보았던 말씀과 삶으로 감동받은 재소자들의 마음이 작은 불씨가 되어 빛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모두에게 힘을 주는 귀한 간증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맞보게 한 감동이었다.

봉사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 항상 새벽을 열며 매년 봄과 가을에 각각 10주 동안 일대일제자양육을 해 오고 있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차를 온전히 소망교도소 형제들을 위해 헌신하는 멘토링 사역에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삶을 나누는 봉사를 수년 동안 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봉사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작은 불씨로의 움직임과 빛으로의 역사하심이 중단된 듯 보였다. 그러나 봉사자들은 이 멈춤의 시간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온라인(Zoom)으로 소망교도소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봉사 재개를 앞두고 듣게 된 소망교도소의 기쁜 소식은 봉사자 모두에게 용기를 더해 줄 뿐 아니라 긴장시키기까지 했다. 물론 교도관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재소자들의 열정과 순종으로 성경적 인성교육 과정들을 코로나19 이전만큼 훌륭하게 이수했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춤이 없음을 경험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다시 새벽을 가르며 나가는 일대일제자양육을 위해, 월차를 내고 교도소 안 형제들과 만나는 멘토링 사역을 위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8:14).

신앙에세이

최영민 목사
(강촌공동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생활을 한 지 어느덧 24년이 되었다. 지난 24년 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참 많았다.

“나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어느 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힘을 썼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간과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제조건임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는 심리학적 용어로는 ‘거짓자아’, 성경적 용어는 ‘겉사람’이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혼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존재 목적과 소명 등 모든 것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았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의식할 수 없게 됐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타락한 인간의 혼은 외부의 환경과 자신의 경험,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거짓자아’(겉사람)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다.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를 ‘속사람’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속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가짜인 겉사람을 부인하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세 가지 차원의 세계가 있다. 첫째, 영적 세계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말씀의 세계이다. 시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세계이다. 둘째, 실제 세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 세계 즉, 물리 세계이며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계이다. 셋째, 인간의 정신세계이다. 개념과 인식의 세계이다.

인간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때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저마다 다르게 인식한다.

저마다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자아가 바로 이 영역에 속한다.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세계 즉, 거짓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바로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영역이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고 하면서 겉사람을 부인하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매일 훈련했음을 고백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성도의 거룩한 탄식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새사람이 옛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25절).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분열시켜 놓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갈등하며 고백합니다. 이 갈등은 절망스러워 보여도 소망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삽니다. 원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원하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분열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갈등상태에 있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분열된 상태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되는 계명이다(마 22:37~38).

우리의 분열된 상태 때문에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있지만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힘쓰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없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뜻을 다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탄식이 우리를 소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거룩한 탄식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셋째, 거룩한 탄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진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25절).

바울이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곤고합니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탄식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옛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만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

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잡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골 3: 10~12).

로마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준 사도 바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능력,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도 참여하려 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는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이지만,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났지만 새로운 몸의 구속을 입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탄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탄식이 필요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더 힘입어야 합니다. 모든 경건훈련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사도 바울의 탄식은 더욱 거룩하게 되기를 열망하고, 성령 아래 있기를 갈망하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서빙고		■ 노원		■ 서빙고		■ 영등포구로		구자복 서병철 권명숙 이경화 김은실 한지연 박종열 이은화 장혁준 고민성 정민교 권용한		전은정 김경아		김유지 최진옥 김지원 김수영 김초롱 유기연 문정운 신미화 박유은 박수진 서예찬 김대영 신규하 차두희 유혜란 이명대 윤신애 이영주 이수정 이해민 이지은 김은미 이호준 김경민 정세훈 김상실 최지수 김순복 한석희 홍범식 한재은 고지아 한진희 김혜지		주사랑 권유숙		■ 남양주		■ 대전		구하은 구지윤 김근휘 김형진 김아빈 김주리 김여준 임미정 김주연 김민아 김 찬 강 희 김하은 김진경 노송미 김연주 목유나 최원미 박하경 강정선 이민하 한소리 이성우 송미현 이하준 이만기 장하윤 김영애 전주하 전용우 조민서 조시연 주민호 홍수연 최수아 강도향 최은수 황혜영 하지민 김은영 한호은 송은영		문건하 문지호 문채원 허은경 박한아 정혜성 송다넬 송준호 임지우 민예원 장세준 장지욱 정지민 김준례		■ 양재		유시현 김정순 한수아 이소라 허태린 이세인		■ 양지		■ 인천	
■ 가정사역 김 항 이윤희 임대준 송홍섭		홍선주 류선희		김은하 이경자 김정태 류기선 서해리 이형순 송희정 서경주 최성수 유일권 한종연 김혜란		■ 성동광진		■ 용산		■ 이수		■ 이춘		■ 한강		■ CHPlus		■ W		■ 어린이		■ 강동		■ 서빙고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권용갑							
■ 강서		김미정 이영란 김안나 최정희 윤미화 김남정		■ 동작		■ 성북		■ 신용산		■ 마포		■ 양천		■ 관악금천		■ 권용갑		■ 권용갑													

양재 9월 만남의 잔치

일시: 9월 19일 15:30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5월 12일~8월 28일 등록 성도

강남A 김유진 박해정 이용재
권재철 노재환 배진서 이희순
권효정 박철우 이용익 임현진

홍순희 이현정 김금혜 이윤의 김정은
장선아 배명훈 이정은 변영화
정종임 전정신 조공수 장여슬

강남B 박시은 백민기 이성민
박시은 백민기 이성민
박시은 백민기 이성민

강남C 박시은 백민기 이성민
박시은 백민기 이성민
박시은 백민기 이성민

분당A 김한기 나효정 박상훈
김한기 나효정 박상훈
김한기 나효정 박상훈

분당B 권정현 김성윤 김유정
권정현 김성윤 김유정
권정현 김성윤 김유정

서초A 김수정 김영숙 송재조
김수정 김영숙 송재조
김수정 김영숙 송재조

서초B 김상협 문은영 이혜숙
김상협 문은영 이혜숙
김상협 문은영 이혜숙

서초C 김남식 김미옥 이시우
김남식 김미옥 이시우
김남식 김미옥 이시우

서초D 김민수 김지연 김현주
김민수 김지연 김현주
김민수 김지연 김현주

남민경 장진수 하주영
장진수 하주영
장진수 하주영

송파A 송파B 송파C 송파D
송파A 송파B 송파C 송파D
송파A 송파B 송파C 송파D

엄성용 윤종희 최시내
윤종희 최시내
윤종희 최시내

심선주 양재A 양재B 양재C
심선주 양재A 양재B 양재C
심선주 양재A 양재B 양재C

정진형 푸른누리
정진형 푸른누리
정진형 푸른누리

김예찬 김한길 김화원
김예찬 김한길 김화원
김예찬 김한길 김화원

서빙고

0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페인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뵘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매주목요일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제83회 성령수련회

일시: 10월 1일 9시~17시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접수: 아이스쿨

문의: 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

*서빙고버스 출발(오전 7시 30분 신동아

쇼핑센터 앞)양재 경유)

제14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

회 참가선수 및 각 캠퍼스회원모집

대상: 온누리교회 성도 및 배우자

문의: 서빙고(오명석 총무 010-6470-

7131), 양재(이범진 총무 010-6891-6665),

수원(박민규 총무 010-3753-4546), 남양주

(권오빈 팀장 010-5535-0119), 대전(김성

동 팀장 010-5454-9338), 부천(황근배 총무

010-4727-5258)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안드로이드 개발, IT디자이너, 웹퍼

블리셔, 웹/앱 개발 기획자, 마케터, 서점직

원(분당) 각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분당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CMN 서울역노숙인 진료팀 모집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

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새가족 만남의잔치

일시: 9월 25일 오후 6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B2)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식사는 불가하고

퇴실 시 샌드위치와 음료가 제공

양재

0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은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일시: 10월 12일(화)~18일(월)

장소: 이스라엘 현지

대상: 이스라엘 현지를 답사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성도

문의: 010-4902-1022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

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선교지 유아 영어 도서 기증

요청

모집: 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

(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02-570-7469)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고민 타파 콘텐츠!

고밀아웃

“**썸녀**가 불교래요. 관계를 이어나가도 될까요?”

“기독교인이 **코인**하면 안 되나요?”



매주 화요일 **퐁당** 업로드

진행 개그맨 정범균 **출연** 한사랑교회 서창희 목사, 오윤서, 김예은, 연은진, 최이삭, 김아윤

*본 프로그램은 '한동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퐁당' 앱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